

더불어민주당

#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 보도자료

위원장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 의원회관 718호 | T 6788-6596 | F 6788-6600 | youngkyos@naver.com)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마사회의 YTN 지분매각 시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및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사회의 YTN 지분매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권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한국마사회에 YTN 지분매각 강요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마사회는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YTN 지분매각을 상정·의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YTN 지분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어 무분별한 언론 민영화를 막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소속 김희재 의원(산중위), 김승남 의원(농해수위), 이수진 의원(환노위), 강민정(교육위)의원이 참석했다.

오늘 진행했던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매각 규탄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을 규탄한다!**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무자비한 언론탄압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언론의 사유화와 정치화를 온 힘을 다해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공기업 한전KDN의 팔을 비틀어가며 YTN 지분매각을 강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림부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매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영화의 탈을 쓴 언론탄압이고, 언론장악 음모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재벌의 꼭두각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시키려는 검은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방송 매체 특성상 말 산업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고, 8월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 혁신 계획을 낼 때도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림해양식품부의 부당한 외압에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매각에 열을 올리는 것은 YTN 지분매각이 “강요에 의한 강제매각”이며,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언론장악의도”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폭거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시절 눈물겨웠던 YTN 구성원들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맞서 길거리로 나서야만 했던 언론인들을 해직과 징계로 탄압하고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겁박했는지언정 실제로 공기업을 움직여 YTN 지분매각을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군사 독재 정권식 언론장악 음모인 것입니다.

공기업 지분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YTN 소유구조는 지난 25년간 경영성과와 공정방송에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YTN 지분을 기업이나 언론재벌에 매각하게 되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게 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한 윤석열 정권 방해막이로 전락할 것입니다.

YTN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MBC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고, 세무조사 후 520억원 이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추정액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효율성'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기관을 매각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YTN을 비롯한 언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 이사회는 YTN 지분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정권수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이 계속된다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YTN 지분매각 중단하라!

2022.12.16.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 부위원장(기재위), 김교흥 부위원장(행안위 간사), 김한정 부위원장(산자위 간사), 김종민 부위원장(정무위 간사), 김승남 부위원장(농해수위 간사), 최인호 부위원장(국토위 간사), 김영진 부위원장(환노위 간사), 강훈식 부위원장(복지위 간사), 고용진·김주영·진선미 위원(기재위), 홍기원 위원(국토위), 윤준병 위원(농해수위), 김원이 위원(보건복지위), 김희재·신영대·이동주 위원(산자위), 민병덕 위원(정무위), 이수진 위원(환노위)



**농림축산식품부  
YTN 매각강요**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 직권남용**

**마사회**

**YTN 매각강요!**

**정기환 회장은**  
***YTN 지분매각***

***중단하라!***